

배성현·이산정·지온·승온·승우 가족 2015년 9월 기도편지

적도의 땅 폰티아낙을 가슴에 품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민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4~15)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은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을
복음화시키는
소중한 씨앗으로
심겨질 것입니다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두 달 만에 다시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쯤 한국의 날씨는 가을로 접어들고, 곧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겠군요. 모두들 건강하신 가운데 가족과 함께 행복 가득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며 적도의 땅 폰티아낙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자욱한 연기로 뒤덮인 도시



우기가 곧 시작되는 건기의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저희가 살고 있는 폰티아낙 도시를 비롯한 보르네오섬 전역이 결국 매캐한 연기로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보르네오섬(인도네시아 명: 칼리만탄)에 거주하는 농민들은 대부분이 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화전농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민간 기업과 국유 기업들 중 팜 농장을 경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태우는 땅의 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 대기오염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매캐한 연기가 도시를 뒤덮기 시작했는데, 급기야 어제(9월 9일) 주정부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최근 몇 년 중에 올 해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는 방송매체의 보도를 접하면서 문득 제 마음 한 구석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영적인 시야를 가로 막고 있는 자욱한 연기들도 속히 거두어 주십시오!’**

*대학 청년 사역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시작된 대학 청년 사역은 이제 5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7월말에는 이 모임에 중심을 이루고 있는 멤버들과 함께 멀리 떨어진 지방에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시골 주민들을 위한 건강검진, 아이들을 위한 레크레이션 활동, 컴퓨터 교습 등 자신들의 전공과 은사에 맞게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흐뭇했습니다. 오랜만에 정글 속 강가에서 남자들끼리 오뎅(?)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함도 누릴 수 있어서 더 없이 행복했습니다.



배성현·이산정·지온·승온·승우 가족

2015년 9월 기도편지

적도의 땅 폰티아낙을 가슴에 품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민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파 같으니라”
(롬 10:14~15)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은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을
복음화시키는
소중한 씨앗으로
심겨질 것입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5개월 동안 주일 저녁마다 이곳저곳 장소를 옮겨 다니며 모임을 가져왔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급기야 지난 주일(9월 6일)에는 모임을 갖기로 예정된 한 자매의 집에 동네 불량배들과 무슬림들이 찾아와서 방해하는 바람에 급히 장소를 멀리 떨어진 다른 곳으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통수단이 없는 청년들 중 상당수가



〈주일 저녁 예배 후 청년들과 함께〉

모임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상황들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어 늘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기도해 주시던 한국의 한 교회에서 승합차 구입과 예배 장소 임대를 위한 비용을 후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 가지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청년들과 함께 기도해 왔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직접 경험한 청년들이 얼마나 감사해 하던지요. 이 일을 위해서 후원해 주신 교회, 그리고 이 필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한 동역에 감사드리며...



지난 7월말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첫째 지온이는 많은 분들의 기도의 후원 덕분에 학교에 잘 적응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수업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내년에 둘째 승온이가, 그리고 내 후년에는 막내 승우가 입학해서 함께 다닐 수 있으니까 조금만 잘 참으라고 달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잘 먹히는 것 같네요.^^ 아이들이 특별한 어려움 없이 이곳에 잘 적응해서 지내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주시는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저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필요가 있으신 중에도 저희를 위해 후원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목사님님 가정과 사역 위에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합니다.

2015년 9월 10일
적도의 땅 폰티아낙에서
배성현 선교사 가정 드림

기도해 주세요

1. 한국어 강의가 많은 젊은이들을 모임에 오게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2. 새로운 친구들이 더해지고, 그들이 복음에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3. 예배를 통해 청년들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도록
4. 아이들(지온, 승온, 승우)의 학교생활을 위해서
5.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무더운 날씨 때문에 습진과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는 이산정 선교사를 위해서)
6. 온 가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7. 후원교회가 계속 잘 연결될 수 있도록

e-mail: 0212bae@hanmail.net / 인터넷전화(국가번호와 지역번호 없이): 070-4843-9485

후원계좌: 국민은행 048401-04-128048 (배성현) 우체국 013052-02-169596 (배성현)